

소니코리아가 플래그십 캠코더 FX9을 공개하며 런칭 쇼케이스를 지난 11월 20일 여의도 Two IFC 3층 Forum에서 개최 했다. FX9은 6K 풀프레임 센서와 빠른 하이브리드 AF 시스템을 갖춘 첫 XDCAM 캠코더라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받았으며, 지난 IBC 2019에서 첫 공개 후 세계적으로 1.000여 대 이상의 예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FS7 캠코더 시리즈의 높은 이동성에 더해. FX9은 새롭게 개발된 이미지 센서 탑재로 강화된 AF 성능과 뛰어난 보케 효과. 슬로우모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디지털 모션 픽처 카메라 VENICE의 컬러 사이언스와 듀얼 베이스 ISO를 계승해 다큐 멘터리, 뮤직비디오, 드라마 제작부터 이벤트 촬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상 제작을 위한 궁극적인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미나는 FX9 동영상 클립이 상영되며 시작되었으며, 나카무라 히데아키 PS 부문 사장의 인사말과 아노 세이야 소니 본 사 제품 매니저의 설명으로 특징과 전반적인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FX9 리뷰에 김홍재 SBS A&T 촬영감독과 엄태식 컬러리스트가 사용 소감에 대해 발표했다.



인사말 중인 나카무라 히데아키 PS 부문 사장



FX9을 소개하는 아노 세이야 소니 본사 제품 매니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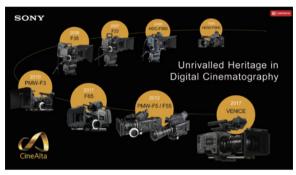




세미나장에 꾸며진 슈팅존

전시되어 있던 FX9

FX9의 주요 특징 설명



소니의 시네 알타 시리즈 변천사, 2017년 베니스의 등장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



프로 캠코더 라인 변천사, IBC 2014에서 FS7이 공개된 후 인기를 끌며 FS5와 FS7 II로 진화하였다



FS7 시리즈의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다



FX9은 베니스와 FS7॥의 중간 포지션으로 생각하면 되며, 미러리스 A7의 컨셉도 포함되었다



바로 전 제품들을 계승한 FX9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풀프레임 6K Exmor R 센서와 하이브리드 AF 등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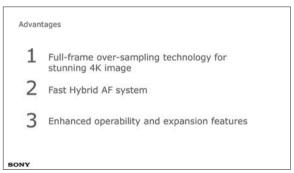




6K 센서, 향상된 AF, 듀얼 ISO, 시네마틱 컬러로 촬영자가 최적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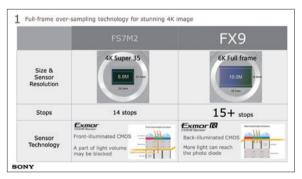
FX9은 다큐멘터리, 뮤직비디오, 드라마 제작부터 이벤트 촬영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영상 영역을 커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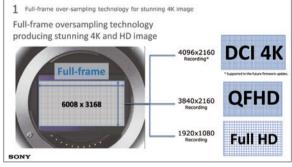
크게 4K 이미지와 AF, 기능 확장을 설명하며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FX9의 6K 풀프레임 센서가 가진 15스탑의 관용도와 듀얼 베이스 IS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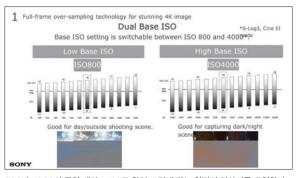


센서 크기 변화로 해상도가 확장되었고, 관용도 및 센서 기술에서도 모두 향상되었다 최대 6008×3168로 촬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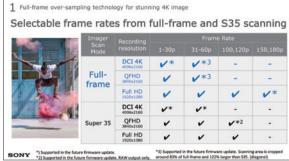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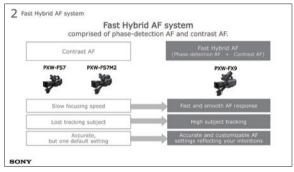
뛰어난 이미지 기술로 해상력과 아름다운 보케, 다이내믹 레인지, 광각의 영상을 🛾 800과 4000의 듀얼 베이스 ISO로 촬영 조건에 맞는 최적의 영상미를 구현한다 촬영한다







VENICE 카메라와 동일한 컬러 사이언스를 탑재, 인물의 피부색을 보다 부드럽고 4K/UHD 60p와 FHD 180p는 내년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능해진다 매력적으로 재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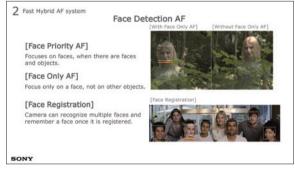
콘트라스트 AF와 위상차 검출 AF의 하이브리드 AF를 지원하여 AF의 성능이 대폭 🏻 총 561개 포인트의 위상차 검출 AF 센서는 화면 너비 및 높이의 각 94%, 96%에 향상되었다



달하는 영역을 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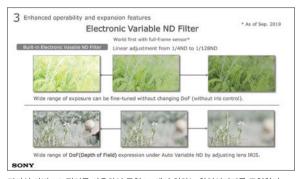
커스텀 AF를 통해 촬영 대상에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얼굴 우선 인식, 얼굴만 인식, 얼굴 등록 등 다양한 얼굴 인식 AF를 지원한다



전자식 가변 ND 필터를 탑재하여 자연스러운 빛을 표현한다



전자식 가변 ND 필터를 사용하여 동일 iris에서 원하는 촬영이미지를 구현한다.



Enterprise News



FS7M2 대비 향상된 기능 설명, 4채널 오디오를 콘트롤 할 수 있다



FS7M2 대비 핸드 그립도 새롭게 디자인하여 착용 느낌을 향상시켰다



960×540에서 1280×720으로 LCD 해상도를 1.8배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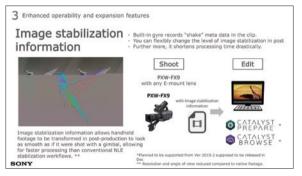


Image Stabilization 메타데이터를 기록하여 후반 작업에서 영상의 흔들림 보정 시 간을 감소시킨다



연장 유닛을 연결하여 10비트 120fps 영상 또는 16비트 RAW 영상을 출력하며, 안 FX9K 번들 키트에는 28-135 G 렌즈가 포함된다 정적인 품질의 듀얼 링크도 지원한다.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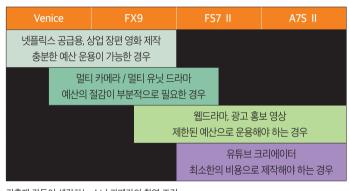


FX9 및 소니 카메라 사용 후기

세미나 후반부에는 김홍재 SBS A&T 촬영감독과 엄태식 컬러리스트, 촬영감독(U5K Image works 대표)이 FX9 및 드라마 촬영에서의 소니 카메라 사용 후기를 공유했다. 김홍재 감독은 '컬러 사이언스를 사용하다, SONY S-Log3 시스템 기반의 드라마 제작현장'을 주제로 지난 4월~7월까지 방송되었던 SBS 드라마 '녹두꽃'을 예로 들며 설명을 이어갔다.

김 감독은 입사 시절, 주어진 카메라를 사용하던 제작 환경에서 이제는 메인 카메라와 서브 카메라를 선택하는 환경으로 바뀌었다면서 녹두꽃 촬영 당시 소니의 카메라를 선택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메인 카메라는 사극의 조명조건과 전반적인 Look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선정했으며 서브 카메라는 메인 카메라에 준하는 이미지와 호환성(렌즈, 필터 운용, 감도 보상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고 한다. 그렇게 메인 카메라로 베니스를 선택했고, 서브 카메라로 FS7M2를, 그밖에 베니스 연장 유닛과 소니의 미러리스 및 액션캠으로 촬영을 해나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소니의 카메라는 S-Log를 공유하여 동일한 영상 이미지를 만들어 냄으로써 컬러 사이언스를 전 라인업에서 공유하는 유일한 메이커라고 설명했는데, 정해진 시간과 예산에서 드라마 촬영을 한다는 것은 최근 들어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현장 및 후반 작업에서의 효율성과 Look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소니 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특히, 나이트 씬에서 FS7M2으로 산의 윤곽이 뚜렷하게 촬영된 장면을 예로 들며, 어두운 환경에서도 수준 높은 관용도를 보여주었다고 언급했는데, FX9에서는 더 발전되었다고 하여 기대가 높다고 밝혔다.

엄태식 컬러리스트는 직접 다빈치 리졸브를 화면의 띄운 시연을 통해 소니 카메라의 이미지 성능을 공유했는데, 작업 시 본인의 촬영 스킬을 설명하며, 최적의 영상미를 구하기까지의 과정을 세세히 소개했다.



김홍재 감독이 생각하는 소니 카메라의 촬영 조건



Look에 대해 설명하는 엄태식 컬러리스트

